

해남고구마, 세계 최고 품질 도약 '시동'

명현관 군수 다가고시마현 고구마 생산 선진 기술 시찰 고구마 가공식품 브랜드화 사례·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지리적표시 제42호로 등록된 '해남고구마'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품질의 고구마로 도약을 시작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날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

본 고구마 주산지인 가고시마현을 방문, 고구마 생산·가공 관련 선진 기술을 시찰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NPO고구마

월드 센터 및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가고시마현청과의 기술 교류와 고구마 재배, 유통, 판매, 브랜드화 사례 벤치마킹과 고구마 체험관광 전문식당, 가공식품 판매장을 방문해 고구마 가공 산업의 다양화와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본 규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고구마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고구마 주산지다. 특히 고구마 술을 비롯한 100여종의 고구마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체험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으로까지 연계해 고구마 산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해남군은 고구마가

치 가공식품 개발 사례 등 고구마 가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남고구마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방문단은 업무협약과 함께 고구마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농협 농산물 직매소와 NPO고구마월드 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구마 가공식품 현장과 고구마 요리 판매 레스토랑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해남=박필용기자



나주시 캐나다 수출 개척단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 현지 슈퍼마켓에서 나주배, 쌀, 배춧,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우수 농수산물, 캐나다 첫 수출시장 개척

현지 유통업체 '팬아시아푸드' 400만달러 수출 체결

나주시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판촉 활동을 펼쳐 캐나다 유통업체와 첫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안상현 나주시장과 지역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8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물 수출 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였다. 나주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인 '팬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달러(약 55억7천만원) 규모 나주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팬아시아푸드(사장 Neyomi McLaren-네오미 맥라렌)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토론토에 대형 슈퍼마켓 4개소를 직영하면서 중국마켓 등 현지 마켓에도 한국 식품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수 농수산물 품질 향상 지원, 수출시장 다변

화에 힘쓴 결과 캐나다를 포함해 6개국과 3천270만달러(약 455억원) 규모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부시장과 일행들은 수출 협약과 더불어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춧,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토론토 대한민국의총영사관에서 관대한 부총영사와 만나 농수산물 수출 및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에 흥성술 캐나

다 호남향우회장과 향우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나주 농수산물 판촉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캐나다 첫 수출 개척에 함께해준 지역 업체 대표들과 호남향우회원의 애환심에 감사하다"며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직불금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주 농수산식품이 케이푸드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신안 '지속가능 정원도시' 방안 모색

내일 자은도 라마다호텔서 정원도시 포럼 개최

신안군은 19일 "오는 21일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와 정원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원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원도시로서의 신안군이 지닌 섬과 자연·생태경관, 문화경관을 활용해 정원문화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원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신안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학회가 주관하며, 정원과 생태 전문가 및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정원도시 정책 및 계획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신안군은 포럼을 통해 정원 도시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원문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 및 정원도시 방안 모색'으로 설정된 가운데 정원도시와 도시 생태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발표자로는 정남철 까피플레움바이오 대표,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장, 경기도 양평 송명준 세미원 대표이사, 최영은 한국식생학회부설 하천습지식생 연구소장 등이 참가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원문화는 단순한 도시 미관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원도시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강진군, 도스포츠마케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사업비 6천만원 확보...전지훈련·경기 유치 93억 경제효과

강진군이 2년 연속 스포츠마케팅 우수 시군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스포츠 마케팅 우수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 주관 '2023-2024 전지훈련 유치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

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지훈련, 전국대회, 스포브리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유치 인원, 홍보 실적, 관광문화시설 이용, 계획 수립, 우수 시책 등 5개 지표

를 종합평가하고, 홍보 실적, 순위 변화, 계획 수립, 우수 시책 등 4개 지표로 노력 평가를 진행했다. 강진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7개 종목의 전지훈련과 경기를 유치해 2만2천511명의 선수와 감독이 방문했다. 연인원으로는 9만7천761명이 강진군에 머물며 숙박, 식사, 관광지 방문,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즐겼다. 이를 통해 약 93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진군은 군 단위로는 드물게 전국 단위 펜싱대회인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선수권대회'를 인접한 장흥군과 공동 개최했다. 3천여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아 훈련이나 경기 없는 날에는 강진 반값여행 혜택을 누리며 지역의 관광 매력을 체험했다. /강진=정영록기자



무안 '솔로도로' 성료...6쌍 커플 탄생

교사·약사·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 몰려

무안군은 19일 "회산백련지(사지)에서 열린 청춘남녀 만남 이벤트 '솔로도로'가 높은 관심 속에 총 6쌍의 커플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초 남녀 각각 1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56명의 남성 신청자와 24명의 여성 신청자가 몰리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안군은 청춘남녀들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추가 인원을 선발해 최종 남녀 각각 12명을 뽑았다. 참가자는 교사, 약사, 공무원, 기업 직원, 간호사 등 직업군이 다양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행사는 무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회산백련지에서 진행해 국내 최대 규모의 백련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알렸다. 또한 회산백련지가 무안군의 대표 데이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회산백련지의 청정 자연이 주는 휴식과 힐링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해 호응을 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솔로도로 만남 이벤트가 청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회산백련지와 같은 무안군의 아름다운 장소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청춘이 무안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역 내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 정책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무안=김상호기자

영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루 고용 가능

영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동안 고용할 길이 열렸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이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년 부터 시행한다. 영암 금정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농촌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 것. 이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이는 개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

자가 1대1로 고용 관계를 맺고 해당 농가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농가는 꼭 필요한 시간에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협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력 공급 계획을 조율하는 등 농촌 일손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금정농협과 제도 시행을 잘 준비해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며 "농사 현장과 늘 소통하며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해당화 추출물' 탈모 억제 효과 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민간기업 기술 이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9일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당화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탈모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부터 진행된 '도시·연안 생활자원 커스터마이징 활용 및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도에 자생하는 130여 식물 중 천연물 가운데 인간 모유두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을 탐색한 결과 해당화 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화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 해안가에 자생하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돼 항염증, 항고지혈증, 피부 노화 예방, 항고혈압 효과 등 다양한 효능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해당화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활용한 탈모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도라인에 따라 발모 촉진과 탈모 억제 효과의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탈모가 유발된 동물 모델에서 해당화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탈모증상 완화효과를 보이는 항호르몬제와 유사하게 모발 성장이 개선되고 굵기가 두꺼워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목포=정해선기자